

# 치우 형상 변화의 사회문화적 원인 고찰\*

宣釘奎\*\*

## <목 차>

- I. 서언
- II. 전생신화의 정의와 전신(戰神)출현의 사회적 배경
  - 1. 전생신화의 정의
  - 2. 전신출현의 사회적 배경
- III. 치우형상의 이중성
  - 1. 역사인물 치우와 신화인물 치우
  - 2. 난신(亂臣) 치우와 전신(戰神) 치우
- IV. 치우 형상 전환의 사회문화적 원인
  - 1. 민심에 의한 오도된 형상의 전환
  - 2. 적의 영혼을 숭배하는 원시유품
  - 3. 실패한 반항 영웅에 대한 동경
- V. 결론

## I. 서언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사회정의 유지와 인류의 부패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민족주의나 제국주의 등의 정치적 갈등에서, 유기체의 필연적인 생존경쟁의 현상으로, 인간의 공격본능에서, 인간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접 집단이나 국가 사이의 분쟁으로, 또는 잉여가치, 생산과 소유의 불균형, 사적 소유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투쟁으로 인하여”<sup>1)</sup> 등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제작되었음.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부 교수

의 갖가지 이유로, 인류사회는 유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왔다. 이처럼 전쟁의 명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본질은 “군대 또는 무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상호 충돌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현상”<sup>2)</sup>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문명의 폭력적 교류에 의한 파괴성의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문화의 융합과 문명의 촉진을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전쟁이 문화의 매개체이자 문명의 촉진제라고 한다면, 문화적 복합체로서의 신화에는 당연히 전쟁과 전신(戰神)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류사에 등장했던 고대 문명국가의 신화에 거의 빠짐없이 전쟁과 전신에 관한 다양한 신화내용이 기술되고 있음이 바로 이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중국의 선진(先秦) 고대사 역시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매년 한 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의 일상화 내지 상례화라고 말할 수 있다.<sup>4)</sup>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병서(兵書)들이 중국에서 저작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전쟁에 얽힌 각종 신화나 전설이 생성될 수 있었던 충분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치우(蚩尤)는 주지하다시피 중국신화의 대표적인 전신(戰神)이다. 전신은 군신(軍神) 또는 병주(兵主)로 불리며, 무운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나 그에

1) 강경표·김영택·남궁승필 공저, 『전쟁의 발견』(도서출판 진영사, 2013), p.9.

2) 강경표·김영택·남궁승필, 앞의 책, p.8.

3) 그리스의 아레스(Ares)와 아테나(Athena) 그리고 니케(Nike), 로마신화의 마르스(Mars), 북구신화의 티르(Tyr), 인도신화의 까르띠keya(Kartikēya), 이집트의 세트(Seth, Set, Setekh) 등등은 모두 각국 신화에 등장하는 저명한 전신들이다.

4) 명말청초(明末清初)의 저명한 학자인 고조우(顧祖禹, 1631~1692)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군사 지리 저작서인 『독서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에 따르면 춘추전국시기 오늘날의 중국 경내에서는 모두 661번, 그러니까 매해 평균 1.2 차례의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춘추시기는 제후국의 겸병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전국시기 역시 그러한 상황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에 춘추전국시기의 전쟁 발생의 숫자는 어쩌면 고조우가 통계한 것을 훨씬 상회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시점이 너무 요원하고 사적 역시 많지 않은 관계로 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施和金, 「中國古代戰爭的時空分布」, 『中國社會科學報』(2010. 04) 第014版, p.1.

\* 原名은 『二十一史方輿紀要』이고 『方輿紀要』로도 간칭한다.

우선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치우의 신화적 형상은 정의와 도덕의 상징인 황제(黃帝)의 권위에 반항하였다가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패악의 난신(亂臣)이자, 황제로 대표되는 중국 고대 문명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 반역의 수괴이다. 동시에 치우는 황제를 제쳐두고 진시황 이후 중국 역대 봉건제왕들에 의해서 융숭한 제사를 받는 전신 또는 병주(兵主)로 받아들여 숭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의와 불의, 선과 악, 통치와 반항 등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일단 확정된 성격은 두 번 다시 그 형상이 바뀌지 않는 중국신화의 구조체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패악의 난신으로 매도되던 치우의 부정적 형상이 중국의 대표적 전신이라고 하는 긍정적 형상으로 전환된 사회문화적 원인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쟁신화의 개념과 전신 출현의 사회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우 형상의 이중성에 대해 정리한 다음, 이러한 이중성이 발생하게 된 사회문화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치우신화에 대해서는 중국내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다만 주로 치우의 지위와 평가, 치우와 염제와의 관계, 치우와 묘족과의 관계 등이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국내에서는 김종미가 선진문명을 가진 치우족에 대한 승리자인 황제족의 고의적인 폄훼가 치우의 이중형상 생성의 원인임을 제시하였고,<sup>6)</sup> 우림걸은 주로 치우전설이 한중일 삼국에서 본토화 되는 과정을 고찰한 바 있다.<sup>7)</sup> 이 외에 진태하<sup>8)</sup>, 정경희<sup>9)</sup> 등이 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인물로서의 치우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5) 唐婧/張雲輝, 「近十年來學術界關於蚩尤問題研究綜述」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31卷 第1期, 2009年2月, pp.19-24.

6) 김종미, 「중국문헌에 나타나는 '蚩尤'의 이중형상(1)」 『中國文學誌』 제25집, 2007, pp.205-231.

7) 우림걸, 「동아삼국의 치우전설에 대한 고찰」 『한국인문학연구』 29집, 2010, pp.249-367.

8) 진태하, 「蚩尤(치우)천왕에 대한 연구」 『한중일공유문화의 탐색과 전략-지속과 발전』 2009, pp.289-300.

9) 정경희, 「배달국 말기 천손문화의 재정립과 치우천왕」 『선도문화』 제9권, 2010, pp.221-259.

## II. 전쟁신화의 정의와 전신(戰神) 출현의 사회적 배경

### 1. 전쟁신화의 정의

전쟁신화(War Mythology)란 사회생활신화 중의 하나로, 원시부락 사이의 빈번하고 격렬한 전쟁 상황을 반영하는 신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은 군대 또는 무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상호 충돌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쟁신화란 그 서사내용이 “폭력적 속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일정한 정치성과 이에 상응하는 규모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sup>10)</sup> 이런 점에서 전쟁신화는 단순한 투쟁신화나 전투신화와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산해경』 「서차삼경」과 「해내서경」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각 개체 사이에 벌어진 살육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다시 서북쪽으로 420리를 가면 종산(鍾山)이라는 곳이다. 그 (산신의) 아들을 고(鼓)라고 하는데 형상은 사람의 얼굴에 용의 몸을 하고 있다. 이것이 흙비(欽鳩)와 함께 곤륜의 남쪽에서 보강(葆江)을 죽이니 이에 천제(天帝)가 종산의 동쪽 요애(嶠崖)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죽였다.<sup>11)</sup>(『山海經·西次三經』)

형천이 이곳에서 신의 지위를 다투었는데 천제가 그의 머리를 잘라 상양산(常羊山)에 묻자 곧 젖으로 눈을 삼고 배꼽으로 입을 삼아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춤추었다.<sup>12)</sup>(『山海經·海外西經』)

「서차삼경」에 등장하는 종산의 아들 고와 흙비가 무슨 연유로 보강을 죽였

10) 鄒文貴, 「先秦戰爭神話簡論」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09年第12期第25卷(總216期) p.34  
 11) 又西北四百二十里, 曰鍾山, 其子曰鼓, 其狀如人面而龍身, 是與欽鳩殺葆江于崑崙之陽, 帝乃戮之鍾山之東曰嶠崖。(『山海經·西次三經』)  
 12) 刑天與帝至此爭神, 帝斷其首, 葬之常羊之山, 乃以乳爲目, 以臍爲口, 操干戚以舞。(『山海經·海外西經』)

고, 또 천제는 왜 이들을 모두 죽였는지 그 연유는 알 수 없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인지 아니면 집단 사이의 갈등에 의한 것인지 그 내막이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신화서사는 폭력성은 존재하나 정치성과 규모성이 전혀 없는 관계로 전쟁신화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해외서경』의 기록은 형천이 천제와 신의 지위를 다투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성은 구비되었으나, 규모성에 있어서는 역시 전쟁신화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폭력성과 정치성, 그리고 규모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신화서사를 우리는 황제와 치우 사이의 투쟁을 묘사한 『산해경·대황북경』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치우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이에 응룡(應龍)으로 하여금 기주야(冀州野)에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응룡이 물을 모아 둔 것을 풍백과 우사에게 부탁하여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천녀인 발을 내려 보내니 비가 그쳤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sup>13)</sup>

쌍방이 서로 무력을 동원했다는 것으로 폭력성이, 기득권 세력인 황제와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치우가 충돌했다는 것으로 정치성이, 상호 편을 갈라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규모성이 구비되었다. 따라서 이는 전쟁신화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대신화에 이와 같이 전쟁신화의 조건에 부합되는 신화서사로는 이미 언급한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 전욱과 공공과의 전쟁, 그리고 대우와 삼묘 사이의 전쟁을 들 수 있다.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은 두 부족 간의 생존 자원과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한 약탈과 반약탈, 확장과 반확장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신화이고, 전욱(顓頊)과 공공(共工)의 신화는 신계(神界)의 권력투쟁이 지상의 홍수로 까지 파급된 대규모의 전쟁신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이 어떻게 홍수를 일으켰으며, 전욱이 어떻게 응대했는지 전쟁의 과정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우(大禹)와 삼묘(三苗) 사이의 전

13) 蚩尤作兵伐黃帝，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應龍畜水，蚩尤請風伯、雨師，縱大風雨。黃帝乃下天女曰魃，雨止，遂殺蚩尤。(『山海經·大荒北經』)

쟁은 부족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전쟁의 과정도 생략되어 있고 특히 신화적 색채가 거의 사라져 버려서 신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 전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 2. 전신 출현의 사회적 배경

인류사회는 진보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화를 계속해 왔다. 원시사회의 말기에 이르러 씨족과 씨족연합이 해체됨에 따라서 각 부족들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 상징화되거나 형상화되어 출현한 것이 전쟁신화이며, 이는 생산력의 상대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원시사회가 해체의 과정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15)</sup> 이러한 해체 과정에서, 타 부락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르거나 세력이 강대한 부락이, 토지와 인구의 수요에 따라서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부락을 침략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노예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그 규모도 확대되어서 전쟁신화를 위한 풍부한 소재가 제공되었다.<sup>16)</sup>

부족 사이의 전쟁의 결과, 어떤 부족은 멸망하게 되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조상신령 역시 사라지게 된다. 또 어떤 부락은 더욱 강성해져서 그들이 숭배하던 조상신령 역시 더욱 그 권위가 확대되고 강화된다. 이러한 사회분화에 따라서 신령의 분화가 일어나고 등급과 직능의 구분 역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14) 鄒文貴, 앞의 글, p.34.

15) 원시사회 후기인 신석기 시대에 농업과 목축업이 출현하게 되었고,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과 목축업 역시 발전하게 되어 제1차 사회의 분업이 나타나게 되어 상품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생산 자료의 공유제를 기초로 혈연유대와 혈통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회조직(氏族共同體, gentile community)에 사유제나 노역제, 그리고 계급관계가 출현하게 된다. 생산력이 더한층 발전함에 따라서 수공업과 농업이 서로 분업하는 제2차 사회분업이 일어나게 되고 상품생산 역시 활발하게 되어서 사유제와 노역제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공유제를 기초로 하던 원시씨족공동체가 급속하게 해체되어 마침내 노예제 사회가 출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기원전 2천년 경인 하대에 이러한 원시씨족공동체가 해체되었다고 보고 있다.

16) 馬良春·李福田 主編『中國文學大辭典第6卷』(天津人民出版社, 1991) p.4335.

바로 사회계급의 분화와 각 씨족이 혼합되거나 서로 정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씨족제도가 해체된 이후 2백 개가 넘는 독립된 도시국가가 건립되었고, 도시국가가마다 모두 자신들의 수호신을 별도로 숭배한 것이나, 고대 중국 사회 역시 씨족제도가 해체된 이후, 수백 개의 소국이 난립하였고, 나라마다 모두 자신들이 숭배하는 조상신이 존재했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17)</sup>

이런 관점에서 전신의 출현은 바로 원씨족 사회의 해체를 촉진하였던 씨족들 사이의 격렬한 투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쟁은 이러한 씨족 집단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투쟁형식 중의 하나”<sup>18)</sup>였다.

### Ⅲ. 치우 형상의 이중성

중국 고대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치우의 형상(形象)은 대단히 이중적이다. 치우는 한편으로 역사인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인물이기도 하다. 신분이나 직급도 서로 모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sup>19)</sup> 또한 한쪽은 물론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치우신화가 널리 전승됨으로써 그의 족원(族源)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그의 형상은 한편으로는 전쟁의 승리와 무운을 담당하는 전신(戰神)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위계질서를 파괴한 난신적자(亂臣賊子)로 묘사되기도 한다.

17) 陳榮富, 『比較宗教學』(世界知識出版社, 1993) p.50.

18) 上海古籍出版社, 『中國文化史三百題』(上海古籍出版社, 1999) p.76.

19) 치우는 황제의 가장 대표적인 적수이지만, 그러나 문헌에 따라서는 황제의 수하로 묘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韓非子·十過』에서는 “昔者黃帝合鬼神於泰山之上, 駕象車而六蛟龍, 畢方並轄, 蚩尤居前, 風伯進掃, 雨師灑道, 虎狼在前, 鬼神在後, 騰蛇伏地, 鳳皇覆上, 大合鬼神, 作爲清角。”이라 하여 치우가 황제가 탄 수레의 앞에서 승냥이(豹), 이리(狼), 호랑이(虎), 표범(豹)을 부리며 길을 여는 수하의 역할로 묘사되고 있다.

## 1. 역사인물 치우와 신화인물 치우

치우와 관련된 문헌 중에서 가장 조기의 문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주서·상맥』을 보면 중국 고대사회에서 벌어졌던 치우족과 황제족 등의 부족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옛날 하늘이 황제족과 염제족을 만들면서 법전을 제정하였는데 염제에게 치우와 소호(少昊)를 관장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염제는 치우에게 소호를 보좌하여 사방을 감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하늘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장상(漿賞)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치우는 염제를 몰아내었고 염제와 탁록의 들에서 전쟁을 하였는데, 서로 싸우는 소리가 모든 산자락에 울려 퍼졌다. 염제는 매우 두려워서 황제에게 구원을 청했다. 황제가 치우를 잡아서 기중(冀中)에서 그를 살해하였다. 황제는 무력으로 심중의 노기를 해소 하였고 대정(大正)을 등용하여 천의를 순화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황제의 공적을 태상기(太常旗)에 기록하였고 치우를 살해한 지방을 절비지야(絕饗之野)라고 명명하였다. 황제는 또 소호에게 조사(鳥師)를 담당하도록 하여 훗날 오제(五帝)가 답습하였던 직관을 수정하도록 명령하였기에 소호의 이름을 질(質)이라고 불렀다. 이에 천하는 매우 화평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혼란이 없는 것이다.<sup>20)</sup>(『逸周書·嘗麥』)

『일주서·상맥』은 서주 초기에 완성되어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에 이르러 현존하는 형태로 고착되었으며,<sup>21)</sup> 주 성왕(成王)이 대정(大正)에게 명하여 형서(刑書)를 제정한 경과가 중심 내용이다. 치우는 염제의 충신이었으나,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 염제를 쫓아내고 염제의 토지를 무력으로 점거하였다. 토지를 상실한 염제는 매우 당황하여 황제에게 구원을 청하였고 황제가 참전하여 치우와 악전을 치르고 마침내 치우를 잡아서 처형하였다. 그리고 엄격한 형법을 제정하여 치우와 같은 반역자들을 압박하여 그들이 두 번 다시 반항할

20) 若曰：“宗揜大正，昔天之初，□作二后，乃設建典命，赤帝分正二卿，命蚩尤于宇，少昊以臨四方，司□□上天未成之慶。蚩尤乃逐帝，爭于涿鹿之河，九隅無遺。赤帝大懼，乃說于黃帝，執蚩尤，殺之于中冀，以甲兵釋怒，用大正順天思序，紀于大帝。用名之曰：絕饗之野。乃命少昊清司馬，鳥師，以正五帝之官，故名曰質。天用大成，至于今不亂。

21) 張懷通，「嘗麥新研」，《社會科學戰線》，2008年第3期，先秦史研究，p.115.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치우 관련 또 하나의 초기 문헌인 『상서·여형』도 『일주서·상맥』과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교훈이 있고, 치우가 처음 난을 일으키니, 백성들  
에까지 뺏치고 미치어, 남을 치고 살인을 하고, 경솔하고 사악하고 안팎으로 난  
을 일으키어, 강탈하고 훔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은 자가 없었오. 구려(九黎)  
의 묘족(苗族) 백성들이 정령을 따르지 않자, 형벌과 법을 만들어 죄 없는 사람  
을 죽였오. 이에 비로소 코 베고 귀 베고 불알 까고 얼굴에 먹칠 새기는 형벌을  
과도하게 만들고, 이 법과 형벌로 모두 제재하여 죄상이 있는 자만을 택하지 않  
았오.<sup>22)</sup>(『書經·呂刑』)

『상서·여형』의 저작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서주(西周)시기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상서·여형』은 주(周)의 목왕(穆王)이 소위 고훈(古訓)을 들어서, 구려(九黎) 부족의 수장인 치우가 반란을 일으키고 제멋대로 가혹한 형벌을 제정하여 묘족 백성을 살육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바른 형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주서·상맥』과 『상서·여형』은 주재자가 각각 문왕과 목왕으로 서로 다르지만, 모두 고대에 황제가 치우의 반란을 계기로 정당한 형법을 제정하였듯이 자신들도 반역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올바른 형법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서로 동일하다. 또한 이들 서주 시기의 사서에 기록된 치우를 비롯한 황제 등은 모두 중국 고대의 부족의 영수이거나 부족명을 지칭하고 있음도 공통적이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오제본기』 역시 『일주서·상맥』이나 『상서·여형』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치우는 역시 황제족에 대항하는 부족의 수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22) 王曰：「若古有訓，蚩尤惟始作亂，延及于平民，罔不寇賊，鴟義，奸宄，奪攘，矯虔。苗民弗用靈，制以刑，惟作五虐之刑曰法。殺戮無辜，爰始淫爲劓、剕、劓、劓、劓。越茲麗刑並制，罔差有辭。(『書經·呂刑』)

현원의 시대는 신농씨의 세력이 쇠퇴해가는 시기였으므로 제후들은 서로 침탈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이들을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현원은 창과 방패 등 무기의 사용을 익혀서 신농씨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했다. 그 결과 제후들은 모두 현원에게 복종했으나, 다만 치우만은 가장 포악하였으므로 현원도 그를 정벌할 수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침범하려고 하였으므로, 제후들은 모두 현원에게 귀순했다. 현원은 이에 덕을 닦고, 병사를 정비했으며, 오기(五氣)를 연구했고, 오곡을 심어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사방의 토지를 측량, 정리하였다. 또한 곰(熊), 큰곰(羆), 비휴(貔貅), 추(獬), 범(虎) 등의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판천(阪泉)의 들에서 염제와 싸웠는데, 여러 번 싸운 후에야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또다시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을 듣지 않자, 이에 황제는 제후들로부터 군대를 징집하여 탁록의 들에서 싸워서 결국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러자 제후들이 모두 현원을 받들어 천자로 삼아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황제이다.<sup>23)</sup> (『史記·五帝本紀』)

중국신화의 역사화가 주로 춘추전국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치우가 신화인물로 등장하는 『산해경』 등의 저작시기가 전국초기 내지 중기의 작품<sup>24)</sup>임을 생각하면, 치우는 역사상 실존인물로서 고대 부족의 수장이거나 부족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전술한 바와 같이 원시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형성된 사유제의 발생에 따라

23) 軒轅之時，神農氏世衰。諸侯相侵伐，暴虐百姓，而神農氏弗能征。於是軒轅乃習用干戈，以征不享，諸侯咸來賓從。而蚩尤最爲暴，莫能伐。炎帝欲侵陵諸侯，諸侯咸歸軒轅。軒轅乃修德振兵，治五氣，藝五種，撫萬民，度四方，教熊羆貔貅虎，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三戰然後得其志。蚩尤作亂，不用帝命。於是黃帝乃徵師諸侯，與蚩尤戰於涿鹿之野，遂禽殺蚩尤。而諸侯咸尊軒轅爲天子，代神農氏，是爲黃帝。(『史記·五帝本紀』)

24) 袁珂, 「山海經寫作的時地及篇目考」 『神話論文集』(上海古籍出版社, 1982) p.2.

25) 사실 초기 신화학의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에우헤메리즘(Euhemerism)의 관점에서 보면, 신화는 역사적 사건의 설명이요, 역사적 인물의 과장된 모험이고, 제신은 실제 인물로 그들의 생전 행위가 와전되어 신격화 되었다. 역사의 관점에서만 신화를 볼 수 없지만, "신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를 반영하거나 또는 신화 속에 부분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신화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신화는 한 민족의 구전되는 신성한 역사이기도 하고, 집단생활의 중대한 사건들이 특수한 형식으로 그 속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민족 공동체의 집단기억이 신화 속에 보존되어 있다. 또한 한 민족의 시조이거나 혹은 역사에서 특수한 공헌을 한 인물이 신화 속의 신이나 영웅 인물로 전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선정규, 『여와의 오색돌 - 중국문화의 신화적 원형』(고려대출판부, 2013) pp.326-327.

원시부족 내지 부족공동체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투쟁이 전쟁신화 발생의 사회적 배경이다. 때문에 부족 사이의 전쟁을 주제로 하는 고대신화에는 실존했던 원시의 역사가 축영(縮影)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화는 고대 역사를 전승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치우신화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산해경』의 치우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황의 동북쪽 모퉁이에 흉려토구라는 산이 있다. 응룡이 남쪽 끝에 사는데 치우와 과보를 죽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하계에 자주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 경우 응룡의 모습을 만들면 큰 비가 내렸다.<sup>26)</sup>(『山海經·大荒東經』)

송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이 육사(育蛇)라고 하는 붉은 뱀이 있다. 어떤 나무가 산 위에서 자라는데 이름을 풍목(楓木)이라고 한다. 풍목은 치우가 버린 차꼬와 수갑 같은 것들이 변하여 된 것이다.<sup>27)</sup>(『山海經·大荒南經』)

응룡이 치우를 죽이고 난 후에 또 과보를 죽이고 그리고 남방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남방에는 비가 많다.<sup>28)</sup>(『山海經·大荒北經』)

치우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이에 응룡으로 하여금 기주야에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응룡이 물을 모아 둔 것을 치우가 풍백과 우사에게 부탁하여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친녀인 발을 내려 보내니 비가 그쳤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 발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그가 머무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sup>29)</sup>(『山海經·大荒北經』)

26) 大荒東北隅中，有山名曰凶犁土丘。應龍處南極，殺蚩尤與夸父，不得復上。故下數旱，旱而爲應龍之狀，乃得大雨。(『山海經·大荒東經』)

27) 有宋山者，有赤蛇，名曰育蛇。有木生山上，名曰楓木。楓木，蚩尤所棄其桎梏，是謂楓木。(『山海經·大荒南經』)

28) 應龍已殺蚩尤，又殺夸父，乃去南方處之，故南方多雨。(『山海經·大荒北經』)

29) 有係昆之山者，有共工之臺，射者不敢北嚮。有人衣青衣，名曰黃帝女魃。蚩尤作兵伐黃帝，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應龍畜水，蚩尤請風伯、雨師，縱大風雨。黃帝乃下天女曰魃，雨止，遂殺蚩尤。魃不得復上，所居不雨。(『山海經·大荒北經』)

상기 『산해경·대황경』의 네 단락의 치우 관련 기록 중에서 「대황남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치우를 죽인 상대가 모두 응룡이다. 특히 「대황북경」에서는 과보마저도 모두 응룡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대황북경」의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응룡이 성공하지 못하자 가뭇의 신인 천녀 발의 도움을 받아 황제가 치우를 죽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응룡이 치우와 과보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치우와 과보가 다 같은 염제의 후예로<sup>30)</sup> 황제와 염제와의 투쟁에서 치우가 병사를 일으켜 염제를 위해 복수를 하자 과보 역시 치우의 병단에 가입하였으나 전쟁에 패하여 피살되었다는 것<sup>31)</sup>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치우가 버린 수갑과 차꼬가 단풍나무로 변했다는 것<sup>32)</sup>은 일종의 변형신화로, 곤이 죽어서 황웅으로 변하고, 과보가 죽자 그가 밟고 가던 지팡이가 복숭아 숲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의 성격”<sup>33)</sup>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우의 후예들에 의해 치우의 불멸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제를 보좌하였던 응룡(應龍)과 천녀 발(魃)이 모두 징벌적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나, 『사기·오제본기』를 비롯한 후대의 허다한 야사필기(野史筆記)가 대부분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에서 황제의 고전(苦戰)<sup>34)</sup>을 말하는 것은 역사인물로서의 치우의 능력은 물론 민중들의 치우에 대한 또 다른 정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면 『산해경』의 치우신화는 바로 고대 부족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실존인물 치우에

30) 阪泉氏蚩尤，姜姓，炎帝之裔也。(宋 羅泌，『路史·后紀四·蚩尤傳』)

31) 袁珂，『山海經校注』(里仁書局，1981) p.361.

32) 곽박(郭璞)은 이 풍목에 대해서 “치우가 황제에게 잡혀 형틀에 채워져 죽임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형틀을 던져 버리자 나무로 변하였다.(蚩尤爲黃帝所得，械而殺之，已摘棄其械，化而爲樹也。)로 풀이하고 있다.

33) 김선자，『중국변형신화의 세계』(범우사，2002) p.17.

34) 而蚩尤最爲暴，莫能伐。(『史記·五帝本紀』)，黃帝與蚩尤九戰九不勝。(『太平御覽』卷一五引『黃帝女女戰法』)，黃帝與蚩尤九戰九不勝。(『太平御覽』卷十五引『黃帝女女戰法』)，黃帝攻蚩尤，三年城不下。(『太平御覽』卷三百二十八引『女女兵法』)，帝征蚩尤七十一戰不克。(『路史·黃帝紀』)

관한 사적이 점차 신화로 전화되어 전승된 기록으로, 역사의 신화화<sup>35)</sup>의 결과라고 해도 무방하다. 역사인물 치우가 신화인물로 전화되었음은 『산해경』 이후, 유흠(劉歆)의 위서(僞書)인 귀장(歸藏)<sup>36)</sup>이나 위서(緯書)인 『용어하도(龍魚河圖)』, 그리고 임방(任昉)의 『술이기(述異記)』<sup>37)</sup> 등과 같은 한대 이후의 문헌에 “치우는 양수(羊水)에서 나와, 8개의 팔(뚝)과 8개의 발에 머리가 새처럼 길었다. 구요(九淖)에 올라 공상(空桑)을 치고자 했으나, 황제가 그를 청구(靑丘)에서 죽였다.”<sup>38)</sup>고 한 것이나 “형제가 81명이나 되고, 짐승의 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하고서 모래와 돌을 먹는다”<sup>39)</sup>는 등, 집중적으로 치우를 비인간의 모습을 한 신화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다만 한대 이후의 이러한 문헌에 “칼과 창, 대뇌 등의 병장기를 조립하여 천하에 그 위세를 떨쳤으며, 무도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으니 어질지도 자애롭지도 않았다.”<sup>40)</sup>고 하는 등, 치우의 병기 제조에 관한 기록과 황제에 대항하

35) 역사의 신화화란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제신들이 대부분 조상숭배라는 종교 관념을 배경으로 하여, 부족의 수령이나 지도자가 사후 조상신으로 신격화되고, 이들 신격화된 조상신이 영웅신으로 전화되는 것을 말한다. 대략 4, 5천 년 전, 모권제 사회가 부권제 사회로 전환되면서 중국은 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조상숭배는 모든 다른 종교 관념과 활동을 제압해 버렸다. 조상숭배 관념의 지배 아래서 씨족이나 부족은 그 발전의 기초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웅 특성의 조상이 점차 신격화되어서, 씨족이나 부족의 생존과 발전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씨족의 보호신이 되었다. 종교 관념의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조상신의 지위가 끊임없이 상승되면서 마침내 최고신(至上神)으로 되었다. 때문에 만약 조상숭배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면, 신격화된 수많은 조상도 없었을 것이요, 그들로부터 전화된 신령과 그 신령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없었다. 羅四鶴, 『論蚩尤神話的發生』 『佳木斯教育學院學報』 2002年第3期, 總第67期, p.46.

36) 『귀장』은 전설적인 역사이다. 흔히 『연산』과 『주역』을 합해서 『삼역(三易)』이라고 한다. 그러나 곽말약(郭沫若)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모두 한 유흠(劉歆)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王宇, 『“연산” 『歸藏』名稱由來考』 『古籍整理研究學刊』 1991年第5期, p.32.

37) 軒轅之初立也, 有蚩尤氏兄弟七十二人, 銅頭鐵額, 食鐵石, 軒轅誅之涿鹿之野. 蚩尤能作雲霧. 涿鹿今在冀州. 有蚩尤神, 俗云, 人身牛蹄, 四目六手. 今冀州人掘地得髑髏如銅鐵者, 卽蚩尤之骨也. 今有蚩尤齒, 長二寸, 堅不可碎. (『述異記·上卷』)

38) 蚩尤出自羊水, 八肱八趾疏首, 登九淖以伐空桑, 黃帝殺之于靑丘. (『初學記』卷九引『歸藏·啓筮』)

39) 黃帝攝政前, 有蚩尤兄弟八十一人, 并獸身人語, 銅頭鐵額, 食沙石子. (『太平御覽』卷七九引『龍魚河圖』)

40) 造立兵仗 刀戟大弩, 威振天下. 誅殺無道, 不仁不慈. (『太平御覽』卷七九引『龍魚河圖』)

는 반역자 내지 살육자의 형상 역시 동시에 묘사되는 것은 바로 『일주서』, 『상서』, 『좌전』, 『사기』 등과 같은 역사서에서 드러난 역사인물 치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후대에 전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난신(亂臣)치우와 전신(戰神)치우

### 1) 난신 치우

치우가 난신 형상으로 기록된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상서·여형』이나 『사기·오제본기』와 같은 중국의 정통 사서(史書)를 비롯하여 현대의 『논형』과 『대대례기』, 그리고 동진 시대 왕가(王嘉)의 지괴소설집인 『습유기』 등이다.

애공(哀公)이 말하기를 “치우가 병기를 발명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하길, “아닙니다! 치우는 보통사람들 중에서 탐심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익을 만나면 도의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치우는 단지 탐욕에 미혹되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지, 무슨 병기까지나 발명하였겠습니까?41) (『大戴禮·用兵』)

『상서·여형』에 말하길, “살해된 백성들이 자신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천제에게 하소연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치우 통치하의 백성들이 누명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하늘에 하소연하는 것이다.42) (『論衡·變動』)

현원이 원흉 치우를 제거한 후, 백성들 중에서 착한 자는 추도 땅으로, 악한 자는 유복땅으로 이주시켰다. 옛날 황제가 치우와 사방의 여러 원흉 들을 제거하였는데, (황제가 죽인) 여러 요귀와 도깨비들이 내를 메우고 골짜기에 가득하

41) 公曰：「蚩尤作兵與？」子曰：「否！蚩尤庶人之貪者也，及利無義，不顧厥親，以喪厥身。蚩尤悟欲而無厭者也，何器之能作？」(『大戴禮·用兵』)

42) 『甫刑』曰：「庶僂旁告無辜于天帝。」此言蚩尤之民被冤，旁告無罪于上天也。(『論衡·變動』)

였으며, 피가 모여 연못을 이루었고 모인 뼈가 산악과 같았다. 수년 동안에 피는 돌과 같이 응고되었고, 뼈는 석회와 같이 희게 되었으며, 기름이 흘러 내기 되었다. 때문에 남방에 비천(肥泉)의 물과 백악(白堊)의 산이 있게 되어, 바라 보면 높고 높아 마치 서리와 눈이 쌓인 것과 같다.<sup>43)</sup> (『拾遺記』卷一)

『대대례기·용병』은 노나라 애공(哀公)과 공자의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공자의 관점에서는 치우는 이익 앞에서는 어버이도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오로지 탐욕으로 가득 찬, 만족할 줄 모르는 무도한 사람일 뿐이다. 특히 많은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치우의 병기 발명의 공로마저도 공자는 전혀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공자는 치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로하고 있다. 『논형』의 치우 관련 기록은 『상서·여형』에 대한 주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치우가 무고한 백성들을 벌한 데 대한 설명이다. 『습유기』는 주로 치우가 황제의 적으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외에 치우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상서』나 『대대례기』, 그리고 『논형』 등은 그 성격이 모두가 유가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문헌이거나 그 작자가 유학자라는 점에서 치우의 난신으로서의 형상은 주로 유가적 사고체계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유가사상이 주류였던 중국사회에서 정통의 관념이 줄곧 강조되었고, 사가들은 또 '성공하면 임금에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성왕패국(成王敗寇)'의 관점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치우의 전쟁은 정의와 사악의 전쟁으로 묘사되었다. 이 점은 『대대례기』에서 보는 공자의 치우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점과는 반대로 『산해경』 등의 비유가(非儒家) 문헌에서는 치우와 황제의 교전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특히 『장자·도척(莊子·盜跖)』에서는 도척의 입을 빌려서 치우를 동정하고 오히려 황제를 헐난<sup>44)</sup>하

43) 軒轅去蚩尤之凶，遷其民善者于鄒屠之地，遷惡者于有北之鄉。昔黃帝除蚩尤及四方群兇，並諸妖魅，填川滿谷，積血成淵，聚骨如巖。數年中，血凝如石，骨白如灰，膏流成泉。故南方有肥泉之水，有白堊之山，望之峨峨，如霜雪矣。(『拾遺記』卷一)

44) 然而黃帝不能致德，與蚩尤戰於涿鹿之野，流血百里。堯、舜作，立群臣，湯放其主，武王殺紂。自是之後，以陵強弱，以衆暴寡。湯、武以來，皆亂人之徒也。(『莊子·盜跖』)

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역사가인 사마천이 『사기·오제본기』에서는 치우를 포악한 인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체계를 문란케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기·봉선서』에서는 진시황이 제사를 바치는 팔신 중의 하나인 병주(兵主)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병주 치우에 대한 제사가 매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치우의 이중적 형상이 사마천 당시에까지 동시에 전승되고 유전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한대 이후의 각종 치우 관련 문헌에 나타난 치우의 형상이 서로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것은 치우의 이중 형상이 동시에 전승되어 지역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그에 대한 관점이 제각기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전신 치우

인류는 유사 이래로, 전쟁과 함께 발전해 왔다. 전쟁이 얼마나 빈번하였든, 또 전쟁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적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었기에, 또는 승리에 대한 씨족구성원 모두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신의 도움을 갈구하였고, 이는 군대의 출정의식이 나 전쟁의 와중에서 봉행하는 전신에 대한 제사로 구체화 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출정 전에 신에게 제사를 바쳐 무운과 승리를 기구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다. 『시·대아·황의(詩·大雅·皇矣)』에 “류제(類祭)와 마제(禡祭)를 봉행하고, 백성을 불러 무마하시니, 천하의 그 누가 넘볼 것이라”<sup>45)</sup> 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전(箋)에 의하면, “유(類)와 마(禡)는 모두 사제(師祭)로, 전쟁 전에 드리는 제사를 유(類)라 하고, 전장에 도착하여 드리는 제사를 마(禡)라 한다.”고 하였다. 주자(朱子) 역시 “류(類)는 싸우러 가기 전

45) 是類是禡，是致是附，四方以無侮。(『詩經·大雅·皇矣』)

에 천제를 제사하는 것이고, 마는 싸움터에 이르러 처음으로 군법을 만든 자를 제사함이니, 황제와 치우를 이름<sup>46)</sup>이라고 하였다.

『주례·춘관·종백(周禮·春官·宗伯)』에 “무릇 사시의 군사목적에 위한 사냥 훈련에는 입표한 곳에서 맥제(貉祭)를 지내며, 신위를 세우는 책임을 맡는다.”<sup>47)</sup>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 “맥사(貉師)는 제사이고, 백으로 읽는다. 입표한 곳에 드리는 사제(師祭), 즉 군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군법의 제조자에게 기세가 배가되어 오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 신은 치우이고, 혹은 황제라고 하기도 한다.”<sup>48)</sup>고 하였다.<sup>49)</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치우를 전신으로 제사하고 숭배한 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시·대아·황의』가 주 문왕(文王)의 건국의 성덕을 칭송한 노래이고, 『주례』의 저작시기가 최소한 전국 후기인 것을 감안하면, 치우가 전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은 늦어도 서주 초기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치우를 전신으로 받들어 제사를 지낸 것은 바로 그의 적수였던 황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용어하도』에서 “치우가 죽은 다음에 천하가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안녕하지 못하자 황제는 치우의 형상을 그려서 천하에 위세를 보이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치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여 팔방의 모든 나라가 다 복종하였다.”<sup>50)</sup>고 하였다. 그러나 흉악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데다 황제와 생사를 다투던 난적 치우의 형상만을 그려서 천하 사람들을 귀순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통과 의례적인 일정한 의식이나 제사 등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사한 사례를 상탕(商湯)과 이윤(伊尹)의 일화에서 엿볼 수 있다. 『여씨춘

46) 이원섭 역, 『시경』(현암사, 1967) p.342.

47) 凡四時之大甸獵祭, 表貉則爲位.

48) 貉師, 祭也, 貉讀爲十百之百, 于所立表之處爲師祭. 造軍法者, 禱氣勢之增倍也. 其神蓋蚩尤, 或曰黃帝.

49) 李玉洁, 『中國故事傳說的英雄時代』(科學出版社, 2010) p.110.

50) 蚩尤沒後, 天下復搖亂不寧, 黃帝遂畫蚩尤形象以威天下. 天下咸謂蚩尤不死, 八方萬邦皆爲殄伏. (『太平御覽』卷七九引『龍魚河圖』)

추·본미(呂氏春秋·本味)』의 기록에 따르면, “상탕은 이윤을 자신의 신하로 얻은 후, 종묘에서 흉악하고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갈대로 만든 햇불을 태워서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제거하고, 순색의 수태지 피로 제기를 칠하였다.”<sup>51)</sup>고 하였다. 이는 비천한 요리사 출신이자 신부의 배가노복(陪家奴僕)이었던 이윤의 신분을 바꾸는 의식이나 제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이었던 죽은 치우의 형상을 그려서 팔방의 모든 제후들을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의식이나 제사를 통한 신력의 확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자세한 형식이나 절차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두 달랐을 것이나, 치우에 대한 황제의 제사를 후세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踏襲)함”<sup>52)</sup>에 따라 전신으로서의 치우의 형상이 점차 수립되어 갔을 것이다. 때문에 진시황에 이르러서는 전신 또는 병주(兵主)로서의 치우의 형상이 완전히 확립되어서 제왕이 제사를 바치는 팔신(八神) 중의 하나인 전신으로 자리매김 되었다.<sup>53)</sup> 특히 팔신에 대한 제사가 “고대로부터 있어왔으나, 어떤 사람은 태공(太公) 이후에 비로소 생겼다고도 한다”라는 태사공의 말에서 전신 치우에 대한 숭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신 치우에 대한 제사는 진시황 이후 한 고조 유방, 송태종, 명태조 등 중국역대의 봉건 군주들에 의해서 계속 수행됨으로써 치우의 전신 형상은 더욱 확고부동해졌다고 할 수 있다.

51) 湯得伊尹，祓之于廟，燔以燿火，爨以犧服。(『呂氏春秋·本味』)

52) 劉范弟，「論戰神蚩尤」『長沙電力學報(社會科學學報)』제18卷第2期，2003年5月，p.71.

53) 於是始皇遂東遊海上，行禮祠名山大川及八神，求僊人羨門之屬。八神將自古而有之，或曰太公以來作之。……八神：一曰天主，祠天齊。天齊淵水，居臨菑南郊山下者。二曰地主，祠泰山梁父。蓋天好陰，祠之必於高山之下，小山之上，命曰「時」；地貴陽，祭之必於澤中圓丘云。三曰兵主，祠蚩尤。蚩尤在東平陸監鄉，齊之西境也。(『史記·封禪書』)

#### IV. 치우 형상전환의 사회문화적 원인

“중국 상고신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격이 선과 악 두 종류로 극명하게 나뉘어 각각 역사 사건의 정반 두 세력을 대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황제, 전욱, 요, 순, 우 등은 고대 제왕으로 개조되어 선한 세력을 대표하게 되었고, 곤, 예, 치우, 공공, 형천 등은 악한 세력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선과 악을 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덕이었다. 덕이란 원래 자연과 사회에 순응하여 인류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우주의 기본적인 순환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고 자연과 사회, 나아가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거나 덕을 실행했다는 말은 사회가 안정되고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의미이다.”<sup>54)</sup> 중국 신화에서 이러한 덕의 화신이 바로 황제이다.

황제는 정의와 질서의 상징이고, 치우는 사악과 혼란의 상징이다. 치우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정을 파괴한 부덕의 대표적 인물이다. 황제에 대하여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마저 이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55)</sup> 때문에 근본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치우는 화하족이 아니라 동이족 내지 묘족의 수령이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을 시작으로 한 고조 등을 비롯하여 역대 제왕들, 소위 황제의 후예들에 의해서 전신 혹은 병주로 숭배되었음은 이미 전술한 바이다. 이는 중국신화의 구조적 특성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다.

54) 선정규, 앞의 책, p.206.

55) 傳言黃帝與蚩尤敵于涿鹿之野，黃帝殺之，身體二處，故別葬之。(『史記·五帝本紀』)

56) 『상서·여형』에 의하면 치우는 九黎族의 군장이다. 구려족이 묘족인가 아니면 동이족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치우의 족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묘족의 민간전설에서는 치우를 자신들의 조상 중의 한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상당수 문헌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徐旭生 같은 학자는 구려가 山東, 華北, 華南 삼성의 경계에서 활동하던 씨족으로, 태호와 소호 집단의 씨족에 속하는 동이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생전의 난신 치우는 이미 황제에 의해서 그의 화상이 이용되었고, 이후 중국 봉건왕조는 물론 민간에서도 널리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sup>57)</sup>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제시되는 해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치우의 전쟁수행 능력을 그 이유로 든다. 비록 실패하긴 하였지만 그 용맹성과 전장에서의 빼어난 능력, 그리고 군사상의 공헌이 고대 중국인들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치우는 중국 최초로 금속병기를 제작하였고,<sup>58)</sup> 군법과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전투력에 있어서는 황제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하여 천녀 발(『산해경·대황북경』)이나 현녀(『龍魚河圖』, 『黃帝玄女戰法』 등)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치우를 제압할 수 있었다.<sup>59)</sup> 그러나 아무리 치우의 전쟁능력이 탁월했다 하더라도 치우는 반역의 수괴이다. 이는 전통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숙명적인 조건이다. 때문에 패장 치우에 대한 황제의 처분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다. 몸을 두 동강 내서 두 개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의 피부를 벗겨서 활의 과녁으로 만들었으며, 위를 적출하여 축국(蹴鞠)을 만들었고, 골육은 육

57) 이 점은 『述異記』 卷上에서 “涿鹿今在冀州。(中略) 今冀州有樂名蚩尤戲, 其民兩兩三三, 頭戴牛角以相抵。漢造角抵戲, 蓋其遺制也。太原村落間祭蚩尤神, 不用牛頭。今冀州有蚩尤川, 卽涿鹿之野。漢武時, 太原有蚩尤神晝見, 龜足蛇首, 大疫, 其俗遂爲立廟。”라고 한 것이나, 『夢溪筆談』 卷三에서 “海州鹽澤, 方百二十里。久雨, 四山之水, 悉注其中, 未嘗溢, 大旱, 未嘗涸。鹵色正赤, 在阪泉之下, 里俗謂之蚩尤血。”라고 한데서 보듯이 치우가 중국 민간에 널리 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8) 『管子·地數』에서는 “蚩尤受而制之以爲劍鎧矛戟”이라고 하였고, 『太平御覽』 卷十五引 『黃帝玄女戰法』에서는 “黃帝與蚩尤九戰九不勝”이라고 하였다. 『太卜陽經』에서는 “伏羲以木爲兵, 神農以石爲兵, 蚩尤以金爲兵, 是兵起于太昊, 蚩尤始以金爲之.”라고 하였다. 『太平御覽』 卷三十九引 『兵書』에선 “黃帝之時, 以玉爲兵, 蚩尤之時, 煉金爲兵, 割革爲甲, 始制五兵, 建旗幟, 樹夔鼓.”라고 하였다. 『龍魚河圖』에서는 치우의 부하들이 모두 “銅頭鐵額”이라고 하였고, 『述異記』 卷上 역시 “蚩尤人身牛蹄, 四目六手, ……耳聾如劍戟, 頭有角. 與軒轅鬪, 以角抵人, 人不能向.”이라고 하였다.

59) 『史記五帝本紀』에서는 “蚩尤最爲暴, 莫能伐”이라고 하였고, 『山海經·大荒北經』에서는 “蚩尤作兵伐黃帝, 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 應龍畜水, 蚩尤請風雨師縱大風雨. 黃帝乃下天女日魃, 雨止, 遂殺蚩尤.”라고 하였다. 『龍魚河圖』에서는 “黃帝仁義, 遂不敵蚩尤, 乃仰天而嘆, 天遣玄女下授黃帝兵信神符”라고 하였다. 또 『黃帝玄女戰法』에서는 “黃帝與蚩尤九戰九不勝. 黃帝歸于太山, 三日三夜, 霧冥. 有一婦人, 人首鳥形, 黃帝稽首再拜伏不敢起, 婦人曰 ‘吾玄女也, 子欲何問?’ 黃帝曰: ‘小子欲萬戰勝遂得戰法焉.’”이라고 하였다. 또 『玄女兵法』에서는 “黃帝攻蚩尤, 三年城不下……”라고 하였다.

장(肉醬)을 만들었다.<sup>60)</sup> 이는 치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의 표현이다. 그런 치우가 만인이 경배하는 전신으로 변화한 데는 단순히 병기제조나 용맹성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더욱 근원적인 이유가 숨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 1. 민심에 의한 오도된 형상의 전환

황제와 치우가 처했던 시대는 부락연맹이 형성되어 강력한 군사집단과 군사수령이 분분하게 출현했던 시대였다. 각 부락집단 사이의 잔혹한 전쟁은 인류의 원시사회가 문명사회로 향하는 과도기에 존재했던 보편적 현상이다. 전쟁은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이었을 뿐이다.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은 결코 정의와 비정의,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 또한 누가 폭군이고 누가 인덕한가는 근본적으로 논의될 수 없었던, 사회변동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일 따름이다.<sup>61)</sup>

「II-2 전신 출현의 사회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시사회의 해체에 따른 사유제와 노예제의 출현으로 부락과 부락사이에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황제와 치우, 염제와 황제와의 전쟁 역시 이러한 약탈전쟁 중의 하나였다. 도덕적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치우의 형상이 부정적으로 그려진 것은 고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성패사관(成敗史觀)의 영향을 받아 치우가 역사적으로 주변화(邊緣化)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때문에 패배한 인물은 반역의 무리나 신으로 변

60) 황제의 치우에 대한 이러한 잔혹한 처분은 1973년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 3호 서한묘(西漢墓)에서 발견된 백서(帛書) 『십대경·정란(十大經·正亂)』에 기록된 내용이다. 瞿焯, 「蚩尤之死」 『讀書』 2001年01期, p.91.

61) 唐靖, 張雲輝 共著, 「近十年來學術界關於蚩尤問題研究綜述」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제31卷第1期, 2009年2月 p.20.

화하여 억압을 받게 된다. “성패사관은 결코 진실한 사관도 아니고 또한 도덕 사관도 아니다. 단지 생존사관일 따름이다. 중국의 전통문화의 심층에 깊숙이 쌓여서 중국 사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 특성은 생존을 수호하기 위한 척도로 영웅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전형적인 격언이 바로 ‘시대의 조류에 민감한 사람이 유능하고 총명한 사람(識時務者爲俊傑: 『晏子春秋·霸業因時而生』)’이라거나, ‘이기면 영웅이요, 지면 역적(勝者王侯敗者寇)’이라는 말이다. 오로지 승자만을 위한 승패사관이 중국전통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이자, 또한 중화민족의 심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병폐이기도 하다.”<sup>62)</sup>

현존하는 중국 신화에는 이미 통치계급의 조종(祖宗)으로 귀속된 정신(正神) 외에도 지식계층이 보기에 악신이거나 사신인 곤, 치우, 과보, 형천 등과 같은 반항신도 수없이 많다. 이는 이들 사대부 계층이 보기에는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다. 만약 이들 반역의 신화들이 계속해서 전승된다고 하면 통치계급의 지위 역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화를 역사로 개조하여 이들 반항신을 역사상 부정적인 인물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이다.<sup>63)</sup>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역사 왜곡은 그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설사 통치계층이 문자로 사실을 날조했다 하더라도 민중들의 마음에 새겨진 진실은 지워버리거나 개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우가 죽었음에도 계속되는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황제가 죽은 치우의 화상을 이용했다는 것은 바로 당시 민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치우의 영웅적 형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전통적 관념과의 타협이요, 오도된 치우의 형상에 대한 정치적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양대(梁代) 임방(任昉)의 『술이기』가 전하는 치우희(蚩尤戲)나 치우에 대한 민간의 제사 등이 널리 성행했음을 보면,<sup>64)</sup> 치우형상에 대한 통치계급의 고의적인 훼손이 아

62) 揚軍, 「論關於蚩尤的四個二律背反命題」, 『銅仁職業技術學院學報(社會科學報)』 第10卷第1期, 2012年 2月, p.24.

63) 同上.

64) 注59 참조.

무리 심해도 민간에서는 결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통치계층에 의해 날조된 난적 치우가 중국의 상하가 모두 숭배하는 전신으로 전환되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민심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다.

## 2. 적의 영혼을 숭배하는 원시유평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장에서 적을 살해하는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많은 적을 살해할수록 영웅적 행위로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프레이저의 『황금의 가지』나 또 이로부터 자료를 선택해서 정리한 프로이드의 『토텐과 금기』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적을 살해하면 반드시 정화의식과 속죄의식을 치러야 했다.

“야만족이나 반야만족들이 그들의 적을 아무렇게나 잔인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타부 풍속에 속하는 일련의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들은 사살된 적과의 화해와 살인자의 절제와 속죄행위 및 정화, 그리고 의례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65)</sup> 이러한 정화와 화해의식은 티모아 섬의 원주민을 비롯하여 셀레베스의 팔루족 등, 많은 원시부족에서도 발견된다.<sup>66)</sup>

특히 보르네오 야만족들은 과거의 적을 그가 죽은 뒤에는 친구로, 수호자로 받든다. “잘려진 적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룬다. 전장에서 적의 목을 가져와서 몇 달 동안 지극한 사랑으로 다루면서 가장 부드러운 이름을 붙여 부른다.

65) 지그문트 프로이드 저 / 金玄操 譯, 『토텐과 금기』(經進社, 1996) p.59.

66) 이들은 승자의 행진을 축하하는 의식에서 승전한 장수가 적들의 목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행한다. 제물들이 곁들여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 노래는 전사한 적을 위해 슬퍼하고 그의 용서를 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너의 목을 가져왔다고 화내지 마라.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머리가 너의 마을에 지금 걸려 있으리라. 너를 달래기 위하여 여기 제물을 가져왔다. 이제 너의 혼도 흠족할 터이니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왜 너는 우리의 적이 되었느냐? 친구였다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너도 피를 흘리지 않았고 너의 머리도 베여지지 않았을 것을 .....” 지그문트 프로이드 저 / 김현조 역, 앞의 책, p.60.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을 입에 넣어주고 담배를 물려주기도 한다. 그리고는 죽은 자가 그의 옛 친구들을 미워하고 새로운 주인을 사랑하기를 간구한다. 이 흥측하게 보이는 행동을 사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sup>67)</sup>

원시부족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치우는 황제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대적하기조차 어려워 천제가 파견한 현녀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제압하였던 최대의 강적이었다. 그러나 황제는 치우를 죽인 다음에 천하를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그의 화상을 이용하였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의식이나 제사가 병행되는 것이 하나의 상례이며, 또한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로서 프로이드가 말한 화해의식이나 정화의식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치우의 형상이 난적에서 다시 전신으로 전화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러한 원시사유의 유풍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 실패한 반항 영웅에 대한 동경

실패한 반역신이 다시 전신으로 숭배되는 것은 현대인의 의식구조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러나 실패한 반역자를 전신으로 받드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현상이기도 하다. 사회 통치계급의 힘과 권위가 강력해 질수록, 신화속의 주신이나 정의의 신 역시 그 힘과 권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는 신화의 기록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신화 속의 주신을 통치계급이 숭배하는 우상으로 삼아서 그에 대한 존엄과 위엄 그리고 명망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황제가 정의와 질서의 상징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의 신상에 고대 통치계급의 이상적 통치자 형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치계급은 황제의 형상을 통해서 인민에 대한 압제와 노역을 더욱 강화하

67) 소상.

여 그들의 통치목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빌미로 삼게 된다.<sup>68)</sup>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군중 속에서 반항신에 대한 염원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항신에 대한 염원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등과 같은 영웅들의 신상을 통해서 구현된다. 중국신화에서 초기 사회의 투쟁을 반영하는 반항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은 모두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봉건통치계급에 의해서 폄훼되고 추악하게 묘사되지만, 수많은 인민들에게는 오히려 사랑과 동정을 받게 된다. 인민군중은 자신의 통치계급에 대한 반항정서를 이러한 반항신의 신화인물에 기탁함과 아울러 이러한 인물의 비장한 사적을 통해서 악한 세력에 대한 자신의 투쟁을 고무한다.<sup>69)</sup>

공공(共工)은 애초에 홍수를 일으키는 악신으로 등장한다.<sup>70)</sup> 또한 많은 문헌에서 공공은 축융, 고신, 신농, 전욱 등 여러 신들과 전쟁을 치른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공과 전욱과의 전쟁이 압권이다.

옛날 공공이 전욱과 하늘나라 천제의 지위를 두고서 전쟁을 하였다. (실패한 공공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부주산에 머리를 부딪치자 천주가 부러지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줄이 끊어져 버린다. 이 때문에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모두 서북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땅은 동남쪽이 꺼져 버려서 모든 물길과 진흙이 동남쪽으로 쓸리게 되었다.<sup>71)</sup>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신화는 중국의 지형 생성을 해석하는 신화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비극 영웅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신구세계의 변혁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항신 공공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묘사로 일관되어 있지만, 그의 아들 후토(后土)는 토지를 관장하는

68) 栢栢青, 「中國神話中的“通治神”和“反抗神”- 神話形象初探之二」『玉溪師範學院學報』1986年第01期, p.54.

69) 栢栢青, 「試論中國神話中的“反抗神”」『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9年第05期, p.68.

70) 共工氏故爲水師而水名。(『左傳·昭公十七年』), 共工之王, 水處十之七, 陸處十之三, 乘天勢以逸之天下。(『管子揆度』), 舜之時, 共工振滔洪水, 以薄空桑。(『淮南子·本經訓』)

71) 昔者共工與顓頊爭爲帝, 怒而觸不周之山, 天柱折, 地維絕, 天傾西北, 故日月星辰移焉, 地不滿東南, 故水潦塵埃歸焉。(『淮南子·天文訓』)

사신(社神)으로 숭배된다.<sup>72)</sup> 이는 공공이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가 보여준 불굴의 투쟁정신은 인민의 찬상(讚賞)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수신화의 주인공 곤(鯀)의 치수 실패, 그리고 그의 아들 우(禹)의 치수성공의 도식과 마찬가지로, 성공과 실패로 영웅인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항정신에 기인한 비극미와 숭고미를 높이 평가한 결과인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전통문화에는 처음부터 실패한 영웅을 숭배하는 역사전통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황제에 의해 목이 잘린 형천(刑天)과 익사한 정위(精衛)에 대한 도연명(陶淵明)의 가송(歌頌)<sup>74)</sup>, 비파곡(琵琶曲) 『십면매목(十面埋伏)』과 경극(京劇) 『패왕별희(霸王別姬)』 등에서 볼 수 있는 패장 항우(項羽)에 대한 인민들의 동정과 애호, 대 흉노전(匈奴戰)에 참전하였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비장군(飛將軍) 이광(李廣)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넘쳐나는 사마천의 『사기·이장군열전(史記·李將軍列傳)』, 실패한 영웅 제갈량(諸葛亮)에 대한 『삼국연의(三國演義)』의 찬상, 비록 목이 잘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마침내 중국의 또 하나의 무신 내지 전신으로 추앙된 관우(關羽) 등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중의 영웅인물에 대한 평가는 결코 그의 성공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 자신의 초심을 지켜가는 숭고미와 비극미에 더욱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우는 황제와의 투쟁에서 실패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황제는 선과 정의를 대표하고, 치우는 악과 사악을 대표하며, 황제와 치우의 전쟁은 선악대결의 전쟁이다. 때문에 치우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패자 치우가 오히려 전신으로 숭배되었다. 이는 불굴의 항쟁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실패한 반항영웅에 대한 인민의 동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2) 共工氏之伯九有也，其子曰后土，能平九土，故祀以爲社。（『國語·魯語上』）

73) 薛宗定，「失敗英雄崇拜與成敗史官 - 論我國傳統文化心態的二律背反」『新疆社會經濟』2000年第3期，p.13.

74) 精衛銜微木，將以填滄海。刑天舞干戚，猛志固常在。（陶淵明「讀山海經」）

## V. 결론

중국 고대신화의 대표적인 전쟁신화 중의 하나가 바로 황제와 치우와의 투쟁신화이다. 전쟁신화 발생의 사회적 배경이 원시공동체 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형성된 원시 씨족의 사유제와 이에 따른 부족 사이의 전쟁이다.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 신화는 일정 정도 중국 고대부족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국 고대의 부족의 수령이거나 또는 부족의 명칭이었던 치우가 황제를 대표로 하는 원시부족의 주류 세력과 벌였던 전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 황제족을 곤경으로 몰아넣었으나, 결국은 패배하여 주살되었다.

중국의 고대 인류들은 치우와 황제 사이에 벌어졌던 이러한 격렬한 전쟁의 기억을 한편으로는 역사로 기록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서사의 방식으로 상징화하여 후대에 전승시켰다. 역사인물로서의 치우와 신화인물로서의 치우가 병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승리자인 지배계급의 의식 체계를 대표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들은 철저하게 성패사관에 따라 치우의 사적을 기록하였다. 치우는 가장 강력한 반항세력이자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실패자였기 때문에 통치의 공고화와 질서유지에 유리하도록 가장 흉악하고 무도한 형상으로 낙인찍어 형상화하였다. 이것이 바로 치우가 중국 역사상 가장 반항적이고 무도한 반역신으로 귀착되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오도된 치우의 형상은, 치우의 진면목을 망각하지 않은 이들 치우 부족의 후예를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의 민심과 적의 영혼을 숭배하는 원시유풀, 그리고 실패한 영웅의 비극미에 대한 동경이라는 문화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대표적인 중국의 전신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치우는 반역신과 전신이라고 하는 이중적 형상을 가진 대표적인 중국의 신화인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參考文獻>

[단행본]

- , 『詩經』.  
——, 『書經』.  
莊子, 『莊子』.  
——, 『國語』.  
呂不韋, 『呂氏春秋』.  
司馬遷, 『史記』.  
——, 『淮南子』.  
王充, 『論衡』.  
——, 『太平御覽』.  
任昉, 『述異記』.  
王嘉, 『拾遺記』.  
徐堅, 『初學記』.  
羅必, 『路史』.  
이원섭 역, 『시경』(현암사, 1967).  
袁珂, 『山海經校注』(里仁書局, 1981).  
鄭在書, 『山海經』(民音社, 1985).  
E. Simmel(薛曼爾) 著 / 鄭紹文 譯, 『神的由來』(上海文藝出版社, 1990).  
陳榮富, 『比較宗教學』(世界知識出版社, 1993).  
지그문트 프로이드 저 / 金玄操 譯, 『토텐과 금기』(經進社, 1996).  
上海古籍出版社, 『中國文化史三百題』(上海古籍出版社, 1999).  
강경표 · 김영택 · 남승승필 공저, 『전쟁의 발견』(도서출판 진영사, 2013).  
선정규, 『여와의 오색돌』(고려대출판부, 2013).  
陳建憲, 『神祇與英雄 - 中國古代神話的母題』(三聯書店, 1995).

[논문류]

- 袁珂, 「山海經寫作的時地及篇目考」 『神話論文集』(上海古籍出版社, 1982).  
車栢青, 「中國神話中的“通治神”和“反抗神” - 神話形象初探之二」 『玉溪師範學院學報』 1986年01期.  
馬良春 · 李福田 主編, 『中國文學大辭典第6卷』(天津人民出版社, 1991).

- 王宇, 「『연산』『歸藏』名稱由來考」 『古籍整理研究學刊』 1991年第5期.
- 車栢青, 「試論中國神話中的“反抗神”」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9年 第05期.
- 瞿焯, 「蚩尤之死」 『讀書』 2001年 01期.
- 김종미, 「중국문헌에 나타나는 ‘蚩尤’의 이중형상(1)」 『中國文學誌』 제25집, 2007.
- 張懷通, 「嘗麥新研」 『社會科學戰線-先秦史研究』, 2008年第3期.
- 唐靖 /張雲輝, 「近十年來學術界關於蚩尤問題研究綜述」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31卷第1期, 2009年2月.
- 鄒文貴, 「先秦戰爭神話簡論」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09年第12期第25卷(總216期).
- 唐靖, 張雲輝 共著, 「近十年來學術界關於蚩尤問題研究綜述」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제31卷第1期, 2009年2月.
- 진태하, 「蚩尤(치우) 천왕에 대한 연구」 『한중일공유문화의 탐색과 전략 - 지속과 발전』, 2009.
- 施和金, 「中國古代戰爭的時空分布」 『中國社會科學報』 (2010. 04) 第014版.
- 우림걸, 「동아삼국의 치우전설에 대한 고찰」 『한국인문학연구』 29집, 2010.
- 정경희, 「배달국 말기 천손문화의 재정립과 치우천왕」 『선도문화』 제9권, 2010.
- 李玉洁, 『中國故事傳說的英雄時代』 (科學出版社, 2010).
- 揚軍, 「論關於蚩尤的四個二律背反命題」 『銅仁職業技術學院學報(社會科學報)』 第10卷第1期, 2012年 2月.

#### <ABSTRACT>

The struggle between Huang-di and Chi-you is one the most well-known story in Ancient Chinese mythology. The mythology reflect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ncient China when wars broke out between tribes after the crumble of community-based clan societies. Based on this historical fact, Huang-di and Chi-you's war story may be regarded as a partial fact. In other words, Chi-you, who battled against Huang-di, represents the leaders who struggled against dominating powers. Although Chi-you cornered the Huang-di's army in battles, he was murdered after losing the war.

Fierce war between the emperor and Chi-you was recorded in the Ancient Chinese history and transformed into mythical events. This is the reason why an individual named Chi-you exists in both recorded history and myth at the same time. In the record, Chi-you is described as a man who is destined to be the most villain and brutal in Chinese history. This is mainly because the history is often recorded with bias by the winners.

However, Chi-you is regarded as a legendary character in mythology. The cultural and social influences over ages by Chi-you's decedents and peasants who admired the hero, ancient worshipping of enemy spirits, and general sympathy for the tragic failure of hero altered his character from one in historical records to the others. Such twofold traits, rebellious and heroic, ultimately created Chi-you's figure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hinese mythical god.

Key Words: Chi-you, Huang-di, transformed trait, socio-cultural influenc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4. 8.	2014. 5. 5.	2014. 5. 12.	2014. 5. 24.	2014. 5. 31.